

45개국 모인 '부산콘텐츠마켓'... 2.2억 달러 거래 성과

660개 업체, 2148명 참여하며 성료
코스타리카 등과 미디어 교류협력
H '미스터트롯 저팬' 협약 진행
드라마 성공 이끈 제작자 시상식



부산 OTT시리즈 어워드.

부산시는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 2024)'이 45개국 660개 업체 2148명의 바이어와 셀러가 참가하며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콘텐츠마켓이 역대 최고 거래 실적을 달성하면서 막을 내렸다. 올해 거래실적은 지난해 대비 5409만 달러가 증가한 총 2억2158만 달러(약 324억원)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마켓 개최 이래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

부산콘텐츠마켓에서는 올해 '영화·영상산업 글로벌 부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산 출신의 배우 안보현을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 신시장 개척을 위해 코스타리카 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에 이어 세르비아의 영화제 NSFF,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OTTera, Inc.와 상호교류 협약을 맺는 등 한층 더 다각적인 미디어 교류 협력을 이뤘다.

최고 시청률 35.7%로 종편 역사를 새로 쓰며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끌어낸 '미스터트롯'의 일본판인 '미스터트롯 저팬' 제작을 위해 TV조선과 일본 NTT도코모 스튜디오&라이브가 '부산콘텐츠마켓(BCM) 투자협약식'을 통한 포맷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미스터트롯 3' 출연자들이 일본 현지를 비롯해 본격적인 세계(글로벌) 진출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수한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들과 국내외 유수의 투자사들이 함께 총 5

건 500억원 이상의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콘텐츠를 유통하고 바이어와 셀러가 중심이 되는 부산콘텐츠마켓만의 특성을 살려 드라마의 성공을 이끈 제작자, 작가 등 주요 인물들을 격려한 의미 있는 시상식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총괄제작자상은 에이치비오(HBO)의 오리지널 7부작 시리즈 드라마 '동조자'의 총괄 제작자 '니브 피치먼(Niv Fichman)'이 수상했다. 작가상은 최근 '눈물의 여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 작가임을 입증한 '박지은' 작가가 선정됐다. 제작사상은 'KT 스튜디오지니'의 메디컬드라마 작품상,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 '메디컬드라마 특별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의학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50만원 지원

창원특례시는 저소득층에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세대이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행한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모인 희망드림 창원뱅크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북도

안전사절단 교육 통해 역량 강화

경북도는 지난 7일 김천대학교 그레이스홀에서 도민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책임질 안전사절단(44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을 했다.

교육은 올해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흥기현 김천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의 '농기계 안전 수칙 및 사고사례'로 진행됐다. 내용은 농기계 안전수칙, 안전사절단 운영매뉴얼 등이 포함돼 안전사절단의 역량을 강화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경주시

안강읍 시외버스정류장 착공

경북 경주시는 안강읍에 공영 시외버스정류장을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17억7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산대리 일원에 건물을 짓고 대기실, 기사 쉼터, 버스차고지 등을 마련한다.

현재 시외버스는 포항에서 영천, 하양, 동대구 구간 노선이 하루 10회, 포항 기계 노선이 하루 19회 운행되고 있다.

기존 터미널은 지난 2017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다 면허를 반납하면서 현재 간이정류장만 이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주민은 물론 옥산서원, 흥덕왕릉 등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주시는 공영 시외버스정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주(경북)=김삼복 기자 ksb8100@

밀양시

'전국파크골프대회' 성료

밀양시는 지난 8, 9일 이틀간 밀양시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18회 밀양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밀양시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 36홀 저타 경쟁 경기로 치러졌다. 8일에는 남자부, 9일에는 여자부 경기가 오전 18홀, 오후 18홀씩 각각 진행돼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경북도, '제 2차 관광진흥기금' 지원

총 36억 규모... 융자·보조사업 진행

경북도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관광진흥기금 지원(융자·보조)을 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의 1차 지원사업 추진 결과 융자 사업에는 신청한 11개의 사업체 중 4곳이 선정돼 40억원, 보조사업에는 125개 사업체 중 49곳이 선정돼 20억원이 지원된다.

2차 지원사업은 1차와 마찬가지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총 36억원으로 융자사업에는 20억원, 보조사업에는 16억원이 배정됐다.

융자 사업은 0.8%의 금리로 관광

숙박업 등 관광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등에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 여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안하면 심사 때 가점을 준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며, 융자 사업은 사업체가 있는 시군 관광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조사업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발표된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진주시,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총력

기본계획 총사업비 6.6兆

경남 진주시는 최근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가 확정된 가운데 지역의 정·재계,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경남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10월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한

회의를 진행했다.

또 올 4월에는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과 조기착공을 건의했다. 그 결과 기재부에서는 9개월 만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다.

남부내륙철도는 사업적정성 및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계획 총사업비 4조9438억원에서 6조6460억원으로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시설계를 속행하고, 각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연말까지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완도군이 "제2회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 대회" 참가해 특산물 수출 업무협약 체결. /완도군

완도군, 국제휴양·치유단지 조성 등 오스트리아서 1000만여 달러 협약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대회 참가
특산물 수출상담회서 190만弗 체결

완도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한 「제2회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대회」에 참가해 '국제휴양·치유단지 조성'과 '특산물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는 장한상수상자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신우철 완도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김점배 장한상수상자협의회장,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장보고한상역대 수상자, 완도군 수출 업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제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장보고한상 수상자협의회와 1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완도읍 일원에 조성될 '국제휴양·치유단지'에는 골프 테마파크, 리조트·호텔, 치유정원, 뷰티 센터, 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특산물 수출 상담회'를 열어 55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에 190만 달러 상당의 전복과 해조류, 해초면 등 특산품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울산시,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

산림청, 5개 지표로 평가 진행

울산시는 산림분야 주요 시책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 5개 지표 주요 산림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산림분야 합동평가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올해 평가에서 ▲지속적

능한 산림자원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 5개 지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가 됐다.

특히 매년 낮게 평가됐던 산불방지 분야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 산불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